

# 올해 관광 트렌드, 관(官) 주도 타파

## 민간 참여 유도 행정은 뒷받침

2022년 남원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이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해 큰 물꼬를 틀고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그것으로,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단계별로 정책을 마련했다.

**남원 관광브랜드 개발사업**

**연계관광코스 개발사업**

- 달달한 여행 코스개발
  - 남원 달잡이
  - 발의별 여행
  - 다라다라 스텝투어
- 남원 화첩기행
  - 옛다솜 화첩기행
  - 규방 공예체험
  - 이달의 월하정인(月下情人)
- 도깨비 야행 코스개발
- 남원 관광카드 운영(웹다중)

**공연프로그램 운영**

**요천 푸드 스트리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달빛정원 미디어트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달빛정원 연계시리즈 광고
- 한복웨딩
- 사인물제작

**달빛정원조성사업**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달빛정원 여행센터 건립**

**달빛정원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

**주민참여형 일자리 사업**

**달빛정원 추진조직 운영사업**

###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1단계는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며, 청사진은 '2022년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3월 11일 오후2시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남원에서 쌓은 관광 실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50명을 선착순으로 끊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남원시 관광과(063-620-6175)로 참석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된다. 20명으로 구성 예정인 시민모니터링단은 남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축제, 공연 관광홍보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되며 수시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반기별 대면 회의도 진행 예정이다.

지역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2년 청년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남원의 청년들을 모아 관광 프로그램 기획과 이벤트 축제 진행 등의 업무를 숙련시켜 관광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 아카데미 사업에는 미디어 기획 15명, 이벤트 축제 운영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2월



리플러스 조감도

25일까지 모집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관광 청년미디어 기획자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남원 지역의 문화관광 예술 관련 기획전문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의 기업과 남원의 청년미디어기획자를 매칭해 일자리 제공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을 통한 지역 관광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인재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 내 취업을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내달 11일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 시민 모니터링단 · 청년 아카데미 운영 진행 예정 상설 공연 민간단체 공모

관광의 완성, 보고 · 먹고 · 즐기는  
과정 거쳐 만족이라는 결과 도출해야



관광 해설

### ▲2022년 시즈도는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남원

인력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남원시에서는 2단계로 한파우 유원지 일원에 추진되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한옥 건축물을 이용한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미디어아트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REPLUS 사업 등의 개발사업, 민간투자로 이뤄지는 모노레일과 쥘 외이어 조성사업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치는 것이 요새 관광이다. 보고 먹고 즐기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거쳐 만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야만 비로소 관광이 완성된다. 이제 큰 변화의 기로에 선 남원관광이 남원 시민과 함께 얼마만큼의 도약을 이뤄낼지 기대해본다. /남원=김기우 기자

리플러스사업  
등권역분류

# 전주천을 살리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